

# 임종과정에서의 역할(성직자의 역할)

장 황 호 목사 동산의료원 원목실장

## 1. 들어가는 말

병원은 역설적인 장소이다 역설은 애매하고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실들로 가득찬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환자는 특히 임종을 앞둔 환자는 역설의 한 가운데 있는 자이다 그에는 평화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가장 평화가 흔들리고 있고, 잡힌 위로를 찾기 어렵고, 좌절과 낙심의 소용돌이가 있다

병원에서 환자가 된다는 것은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다 위기란 선택의 기로이고 전환점이며 위험과 가능성을 함께 담고 있는 대립 현상이다 위기가 가져다주는 위협은 균형이 깨지고, 연속성이 도전을 받으며, 익숙했던 일상생활이 파괴 된다는 것이다 위기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을 바꿔 놓는다

위기는 모순, 애매모호함, 삶의 역설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촉매제이다 위기는 무질서, 불균형, 대변동을 대표하는 이 지구상의 삶의 현실을 거슬러 조정, 안정, 연속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끊임없는 열망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킨다 인간의 한계와 부닥침은 불가피하게 우리를 정체성과 운명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한다 질병으로 인해 삶의 위기를 맞은 환자, 특히 임종을 앞둔 환자는 살아있는 인간 문헌(Living Human Document)이 된다 임상에서 활동하는 성직자의 관심은 살아있는 인간문헌에 있다 성직자는 환자의 말과 태도 그리고 마음의 상태와 의도하는 바를 어떤 연구방법의 틀에 맞추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움직이는 생활 전체를 하나의 '문헌'과 같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이해한다 그래서 환자 자체를 '인간 문헌'으로 보는 것이다

모든 문헌은 그것이 의학이건 심리학이건 가에 그 기록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살아서 움직이고 변하는 문헌과도 같기에 항상 다르다

## 2. 임상 현장에 있는 성직자

### 1)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모든 성직자는 신학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문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자이다 특별히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성직자는 임상목회교육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임상목회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육체적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살아있는 인간문헌'을 읽고 그것을 스스로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목회자로서의 자신을 자각하는 것이며, 둘째는, 환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대화록으로 정리하며 정리된 대화록을 중심으로 여러 사례를 감독자와 동료들과 함께 분석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간 삶의 전 차원을 이해하는 인목을 키우며 목양적 차원에서 인간을 돌보는 목회 돌봄의 전문적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 2) 상처 입은 치유자이다.

성직자는 자신의 상처를 돌보아야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이다 성직자는 기독교 신앙인리의 내용을 환자가 가진 실존적 질문을 통하여 해명하고, 실존적 질문의 심각성을 기독교 메시지로 조명하여 극복하게 하는 일을 한다.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때 인간은 답답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며, 상처를 받게 된다 인간의 삶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철학적인 문제들을 또 다른 철학적인 방법으로는 대답을 줄 수는 없다 대답을 줄 수 있는 길은 하나 즉 신학뿐이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성직자의 중요한 사명이 있다 그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기에 처한 인간이 응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할 때 거기에서 만남(encounter)이 일어나며, 이 만남을 통하여 인간의 철학적인 문제는 해결되고, 부조화는 조화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인간은 나의 존재성과 폐쇄성, 나의 방어벽, 나의 이기적 세계관이 교류적 침투압에 의해 무너지고 나 이상의 "나"가 되는 잠재성을 발휘하게 된다

### 3) 예수님이 모델이다.

성직자의 모델은 예수님이다 철학적인 문제를 안고 사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좋은 모델은 엠마오의 두 제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은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두 제자는 함께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들에게 부드럽게 설명해주고, 기도해주셨다 결국 그들이 예수이신 줄 알게 되었을 때, 그들 속에는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 만남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였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되돌리는 역사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이처럼 성직자는 환자와 함께 동행 하며,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며, 영원한 기독교의 가치관인 말씀을 설명해주며 함께 기도하므로 환자의 삶에 부드러운 혁명(예수님과 만남)이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3. 임종과정에서의 성직자의 역할

성직자는 단지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퇴원시키는 일을 하지는 않는다 성직자의 역할은 환자를 영적으로 돌보는 일이다 여기서 돌봄이란 육체적 고통과 그 결과로 생기는 고통들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위해 그들의 고통뿐 아니라 고통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돌봄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고통 속에 있는 환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무엇인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모든 고통의 소리들을 대면하는 것이다

#### 1) 상징을 통해 대면한다.

성직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닌 기록함의 상징이다 성직자는 자신의 모든 역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다 상징으로의 성직자는 자신 너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성직자의 상징은 어떤 한 차원만이 아니라 전체적이고도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성직자는 언어로써 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자신의 현존을 통해 전 인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현존은 그의 말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성직자가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의 영적인 문제를 독특하게 다룰 수 있는 힘은 그가 보유한 상징위력(SYMBOL POWER)과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증거 기반과 자원에 있다 그는 인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위기의 상황에서 증언하는 상기자(REMINDER)로서의 상징 위력을 지니고 있다 성직자는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경적 자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그러므로 성직자는 임종을 맞이한 환자앞에 죽음에 의해서 파손될 수 없는 사랑과 구원의 상기자가 되는 것이다

성직자의 이런 상징은 노력의 대가로서가 아니라 선물로서 주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주어진 것이며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의해 확증된 것이다

그러나 성직자의 상징적 역할은 다음 세가지 방법을 통해 파괴될 수 있다 첫째는, 성직자의 삶이 그가 대리하는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상징의 파괴가 일어난다 심지어 가족이나 이웃, 친구, 교우들에게 대해서도 자신이 하나의 인격으로서 보다는 돌봄을 받는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 2) 소외감

의료진과 가족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환자는 늘 외롭다 병상에 누우면 자신이 하던 일과 일상적으로 만나던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 사회에서 자신만이 격리 되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영적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3) 두려움(불안)

질병은 환자가 살아온 삶의 구조를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환자는 앞날에 대해 위협을 느끼게 되고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은 질병 자체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오는 결과들도 포함한다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염려, 가족에게 부담을 줄 것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 죽음이후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다

## 4) 짜증과 불평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환자는 자신이 불공평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만 집착하게 된다 또한 자신이 지금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 5) 분노

환자는 자신이 부당하게 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다고 느낄 때, 이는 의료진이나 가족 또는 방문자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가 있다 특히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출되기도 한다

## 6) 죄책감

환자는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다 불평과 분노가 남에게 향한 정죄라면 죄책감은 자신에게 향한 정죄이다

## 5 임종환자가 던지는 영적 질문

엘리자벳 퀴블리로스(Elisabeth Kubler-Ross)가 말한 죽음을 맞는 다섯 단계 인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과정들을 어쩔 수 없이 거치면서 인생을 총 결산해야만 하는 말기 환자들은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감수해 나가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임종을 앞둔환자는 그들이 당하는 아픔이 전인적인 아픔이기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아픔을 호소하게 된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은 그들에게 찾아오는 영적 아픔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신(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영적 존재가 된다 특별히 크리스찬 임종환자들은 저들이 하나님께 대해 던지는 질문은 크게 세 가지이다

### 1)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벌하시고 착한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지 않으시는가 왜 착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 모두 차별 없이 재난이 발생하는가 애써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인생은 산산 조각나고 말았다 비참한 자신의 상태와 하나님 나라의 상급,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의 약속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는가

### 2)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

환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하고 해보았지만 불행히도 그 선택이 실패를 안겨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르기 원하신다면 왜 좀더 쉬운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가

### 3)하나님은 숨어 계신가 ·

왜 하나님은 인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셔서 회의론 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의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드시지 않는가 환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와 확증과 그분의 기적적인 현현을 간절히 바란다 즉 자신의 귀로 들을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왜 나에게만 나타나지 않는가 나의 삶에는 왜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가

임종환자들이 던지는 영적 질문에 대해 누가 이들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을까 영적으로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만이 전인적인 아픔, 특히 영적 아픔을 호소하는 환자를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끝까지 인간답게 살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체의식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을 것이다 저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을 때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은 그들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한결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 6. 나가는 말

현대 의학, 특히 한국에서는 아직도 의료진과 성직자의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어서 의학적 돌봄(medical care)과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이 서로 상반되는 이질적 입장에 있다 성직자는 임상목회의 기본적 학습이나 훈련이 전무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방문하여 의학적 지식과 상반되는 접근을 하므로 담당 의사는 성직자의 방문을 싫어하게 되고, 반대로 의료진은 영적 실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환자를 물질적, 과학적 시각으로 육체의 치료에만 관심을 가지므로 성직자는 자연 영적인 면만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을 때에 사람이 분리해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쌍방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가지고 전인을 치유하는 공동 목표 하에 접근함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오직 준비되고 훈련된 성직자들이 병원에서 의료진들과 더불어 환자들을 보살필 때 가능하게 된다 성직자는 마지막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는 환자에게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입마누엘

하신 것처럼 저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신 기독교적인 가치관들 즉 사랑, 기도, 찬송, 말씀, 교제, 배려, 돌봄 등을 총동원하여 환자를 지지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접촉제처럼 역사할 때 환자들은 자신의 삶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기엔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이다 성직자는 바로 이러한 축복된 사역에 최전선에선 자이다

### 참고도서

로렌스 E 홀스트 역음 병원사목 가톨릭 중앙 의료원 원목실 역 서울 가톨릭 대학교 출판부 1997

벤 C 존슨 목회영성 백상렬 역 서울 도서출판 진흥 1995

주디스 엘런 셸리 영혼을 치유하는 간호 윤귀남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01

C W 브리스터 현대인의 절망과 희망 오성춘 역 서울 홍성사 1987

김석환 말기 암환자를 위한 목회적 돌봄 서울 새한 기획출판부 2002

헨리 JM 나웬 상처입은 치유자 이봉우 역 경북 분도출판사 1982

병상을 두드리는 목회 한국원목협회 서울 두란노 2002